



해양수산부
목포지방해양수산청

보 도 자 료



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
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
보도 일시	2022. 8. 12.(금)	배포 일시	2022. 8. 11.(목) 14:00
담당 부서	선원해사안전과	책임자	과 장 김왕식 (061-280-1640)
		담 당	주무관 윤민호 (061-280-1641)

하계 휴가철, 서·남해안 연안여객선 38만 4천명 이용

-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섬 관광 수요 증가로 전년 대비 24% 증가 -

목포지방해양수산청(청장 김성수)에 따르면 하계 휴가철 특별수송 기간(7.22.~8.10) 동안 전남 서·남해안* 지역 여객선 이용객은 38만 4천명, 차량은 11만 3천대로 지난해 대비 각각 24%, 9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

* 영광, 무안, 신안, 목포, 진도, 해남, 완도, 강진

태풍 ‘송다’의 간접 영향과 해상 농무로 인한 부분 통제에도 불구하고,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진도-제주 항로 신설에 따른 여객선 취항 등으로 섬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.

목포권은 24만 8천명으로 전년 대비 32%가 증가했다. 주요 항로별 실적은 목포-제주 항로가 7만 2천명(41%↑), 목포-홍도 3만 6천명(42%↑), 목포·남강-가산 3만 1천명(16%↑), 목포-하의·신의가 2만 4천명(5%↑)이다.

완도권은 13만 6천명으로 전년 대비 11%가 증가했으며 주요 항로 실적은 화홍포-소안 3만 4천명(37%↑), 완도-청산 2만 3천명(4%↑), 당목-일정 1만 1천명(35%↑), 땅끝-산양 항로는 3만 8천명으로 전년대비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.

목포해수청 관계자는 “하계 휴가철 특별수송기간 아무런 사고 없이 원활하게 수송이 이뤄졌으며,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앞으로도 여객선 및 터미널 방역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” 라고 밝혔다.